제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
의결안건(제43-3호)

민간부문 참여 전략

2022. 11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대내외 여건 ····· 2

Ⅲ. 민간부문 참여 개요 ····· 4

Ⅳ. 민간부문 참여 현황 및 평가 ····· 6

Ⅴ. 추진 전략 ····· 11

1.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 ····· 12

2.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 ····· 15

3.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 ····· 18

Ⅵ. 향후 계획 ····· 20

Ⅰ. 추진 배경

◇ UN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달성을 위한 민간재원 이슈 부각

○ **국제사회**는 개발재원 확충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**개발재원 논의 진행**

* 코로나 19로 인해 SDGs 달성 위한 재원의 부족액이 2.5조 달러에서 4.2조 달러로 증가(OECD, 2020)

- 주요 논의들에서 **민간재원 확충 필요성**에 대한 공감대 형성

> ▸ **(2002) '몬테레이 합의'**에서 다양한 **개발재원 확보 강조** → ODA 이외 국내재원 동원, 민간자금, 무역 촉진 등 필요성 언급
>
> ▸ **(2011)**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(HLF-4)는 **민간부문**을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**핵심 파트너**로 인지 → 기업을 혁신, 전문성, 금융의 원천인 개발주체로 인정
>
> ▸ **(2015) '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**(Addis Ababa Action Agenda)'은 **효과적인 개발협력**을 위한 **민간 기업 및 재원의 역할 부각**

○ 공여국들의 **ODA 규모는 정체**되는 가운데 **민간재원 중요성은 확대**

* DAC 회원국 ODA 규모(십억불, OECD) : ('15년) 132 → ('17년) 147 → ('19년) 146
DAC 회원국 민간재원 흐름(십억불, OECD) : ('15년) 100 → ('17년) 246 → ('19년) 224

◇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잠재력에 관한 인식 확산

○ 최근 **개발협력 주체가 다변화**되면서 정부 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민간부문, 특히 **기업 참여 중요성**에 대한 인식 확산

* 미국 등 주요 **DAC 회원국**들은 **민간부문 참여(PSE, Private Sector Engagement) 전략 채택**

- 국제사회는 **개발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민간부문 참여**를 위한 **캄팔라 원칙* 채택**('19.7월, GPEDC 고위관리회의)

* △주인의식 △결과 중심 △포용적 파트너십 △투명성 및 책무성 △비소외(Leave No One Behind)

○ **민간(기업)의 전문성과 혁신성**이 개도국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**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**

- 민간부문은 **시장 기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**을 뒷받침하여 개도국의 **자생적 성장**(self-reliance)을 유도하는 잠재력 보유

⇒ 개발재원 확대 및 기업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도국 SDGs 달성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간부문 참여 전략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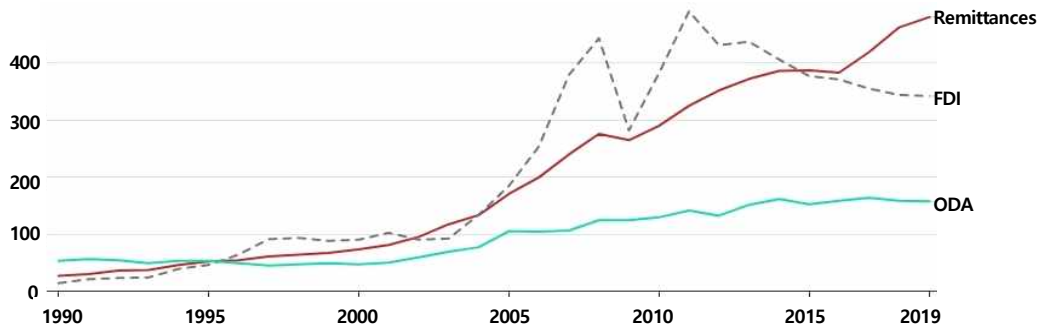
Ⅱ. 대내외 여건

◇ 국제사회는 민간재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개도국 지원

○ **개도국으로 유입**되는 자금 중 **민간재원**(직접투자, 이주자송금 등)은 공적 개발재원인 **ODA 보다 큰 규모**

* 개발재원은 개도국의 경제·사회발전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을 통칭, 공적 지원 주체가 제공하는 공공재원 및 민간재원을 포괄

개도국으로 유입되는 재원 추이 (중국 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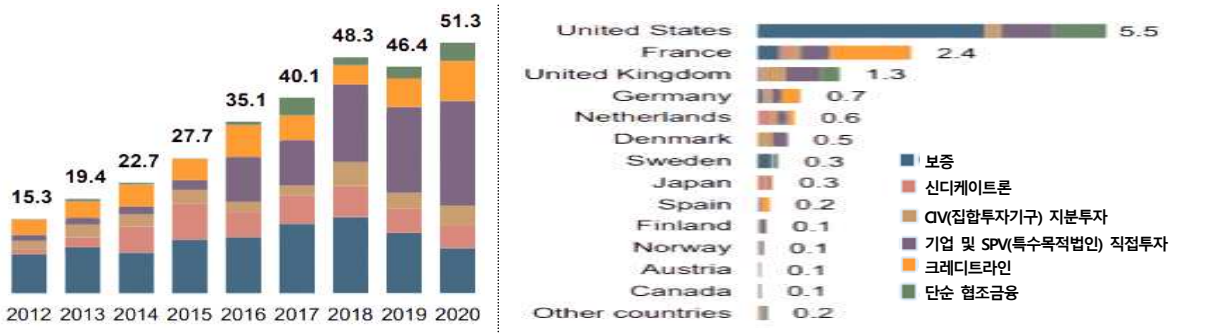


* 출처: Global Knowledge Partnership on Migration & Development (World Bank Group, 2019)

○ 주요 국제기구 및 공여국의 공적자금과 연계된 **민간의 개발협력 재원*은 지속 증가** 추세(연평균 16.3%↑)

* **('12년) 153억불 → ('20년) 513억불**, 세계은행 등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이 대부분('18~'19년 평균 74%)이나, 양자 공여국(美, 佛, 英, 和, 獨 등)의 참여도 증가 추세

주요 공여국의 유형별 민간재원 조성 규모 (단위: 십억달러)



* 출처: OECD(2022) "Amount Mobilised from the Private Sector by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nterventions in 2018-20"

○ 美, 獨, 佛 등 선진국들은 개발금융기관*(DFI)을 통한 **다양한 시장 금융기법**(보증, 지분투자 등) **적극 활용**

* **D**evelopment **F**inance **I**nstitution : 개도국 민간기업·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대출·투자·보증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수익성·전략적 투자를 하는 공공금융기관

◇ 최근 全 세계적으로 ESG 논의 가속화, 국내에서도 관심 확산

○ 글로벌 ESG* 논의가 확산되면서 효율성 이외 **회복력·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기업 성장 인식** 증대

* 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: 환경·사회 문제 해결 노력을 기업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비재무적 가치로, 全 세계 ESG 투자 규모는 약 40조 5천억불 수준(GSIA, 2020)

- 최근 우리 기업들도 전통적인 이윤 창출 활동 외에 **환경·사회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실천**하는 ESG 경영에 관심

*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, 전담조직 신설 등 추진

○ ESG 지표는 **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요소**이며,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**SDGs와 연계 → 개발협력과의 접점* 발생**

* 공여국 민간기업은 ESG 경영下에서 전문성·상품을 전수·판매하고 개도국의 자생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이윤 추구와 개도국 발전에 기여 가능

-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**개도국 ODA 사업 노하우**와 경험을 활용,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분야 **ESG 사업 발굴 등 시너지 기대**

◇ 한국은 개발협력 분야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규모는 미미

○ 정부는 「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」과 연도별「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」에서 시민사회·기업과의 민관협력을 지속 강조

- 다만 현재 우리 **기업의 개발협력 참여**는 입찰을 통한 ODA **조달시장에 참여**하는 방식이 대부분(조달사업 예산 비중('17-'21년 평균) 약 61%)

○ 일부 시행기관(KOICA 혁신적 개발협력, EDCF PPP사업 지원 등)에서 **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**을 추진 중이나 **보다 활성화될 필요**

* 기업협력 사업 예산(억원) : ('17) 335 → ('20) 322 → ('21) 391(전체 사업비의 약 1.3%)

⇒ **민간재원 유치 필요성, ESG 관련 국내외 수요 증가, 우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 등 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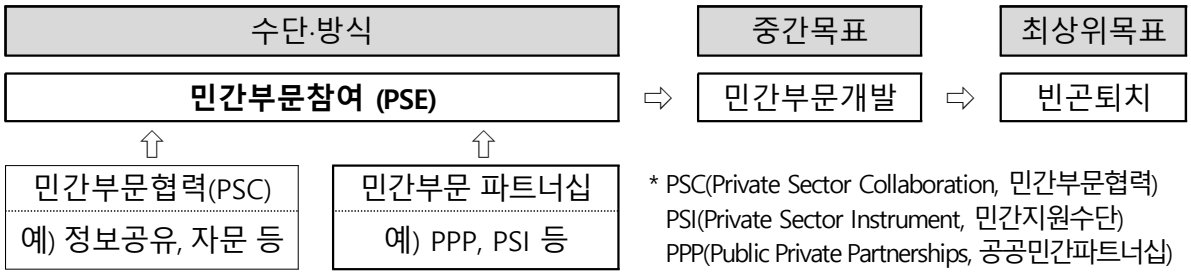
Ⅲ. 민간부문 참여 개요

1 개념

□ 민간부문 참여(PSE)란 **개발협력 성과를 달성**하기 위해 공여국의 **공공부문이 민간부문*을 참여**시키는 **모든 수단과 방식**(OECD, 2016)

* 동 전략에서 '민간부문'은 **'민간기업'에 한정**하여 사용

민간부문의 개발협력 활동 관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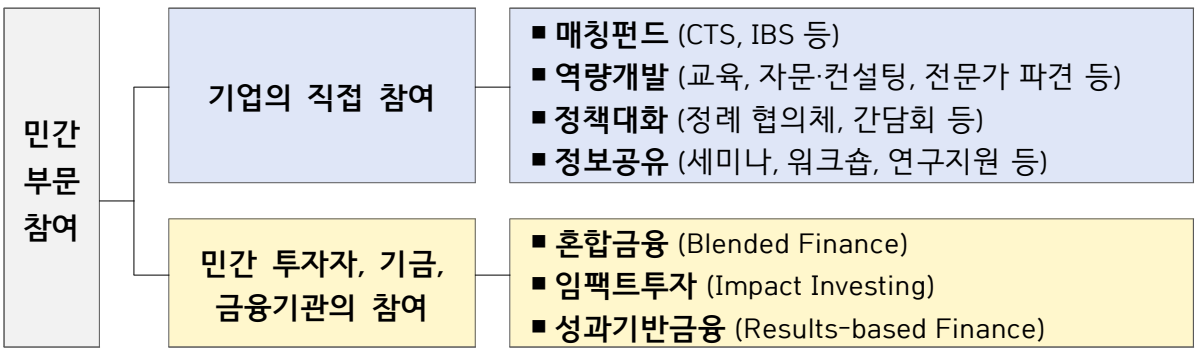
* 출처: 민간부문(기업)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(국조실, 2021)

2 유형

□ 기업의 **직접 참여**(정책대화, 기술협력 등)와 민간투자자·금융기관의 **간접 참여**(혼합금융, 임팩트투자 등)로 구분 가능

* 기업이 조달(입찰)을 통해 ODA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제외

기업의 개발협력 참여 유형



* 출처: 민간부문(기업)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(국조실, 2021)

< 용어의 개념 >

- **(혼합금융)** ODA를 포함한 공적 개발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유도하는 방식 (공공은 부족한 재원 보완, 민간은 투자위험 높은 사업에 참여하는 장점)
- **(임팩트투자)** 재무적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·환경적 성과까지 달성하도록 고안된 사업에 대한 공공·민간 등의 투자
- **(성과기반금융)**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 달성시 약정된 조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액 상환

3 기대효과

□ (정부) 개발재원 보완 및 개도국 지원 수단 다양화 가능

○ 신규 개발재원 유입을 무한(無限) 확대하기 어려운 ODA 재원 보충 효과, **PPP 등 민간재원 활용** 사업은 **개발효과성** 및 **경협관계 증진에 기여**

○ 민간이 보유한 사업 전문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은 **개발협력 활동의 유연성 제고 가능**

○ 기업 노하우와 혁신적 기술은 **개발협력 지원 대상 및 범위 확장 가능**

□ (기업) 개도국 시장 진출 및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도움

○ 개도국 新시장 투자에 따른 **위험부담 경감 및 사업확장의 기회**

- 신흥시장은 지난 10년간 전세계 GDP 성장의 2/3 차지 (IMF, 2017)
- '10-'15년 신흥·개도국은 전세계 소비 증가의 70% 이상 차지 (IMF, 2017)
- '15-'30년 신흥·개도국 시장의 소비자 지출 성장은 선진국 시장보다 약 3배 더 빠를 것으로 예측 (Euromonitor International, 2015)

○ 정부 기관(부처 및 KOICA·수출입은행 등)과의 협력 활동은 **신규사업 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**

○ 개도국 내 기업 인지도 및 이미지 개선을 통해 **ESG 등 비재무적 평가 가치 제고** 및 잠재적 구매자 확보 가능

□ (수원국) 공여국의 민간부문 참여로 자국의 경제·사회개발 촉진

○ 개도국의 **민간부문 개발**을 통해 자생적 성장 동력인 **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용이**

○ 개발협력 사업 종료 후에도 민간부문 개발의 **지속가능성 확보** 용이

※ 다만, 공공(정부)과 민간(기업)의 **상이한 동기**, 기업 **참여 유인 부족**, 협업 **절차의 복잡성**, **의사결정 지연** 및 **개도국 변수** 발생 가능성 등의 **위험 요인도 존재**

Ⅳ. 민간부문 참여 현황 및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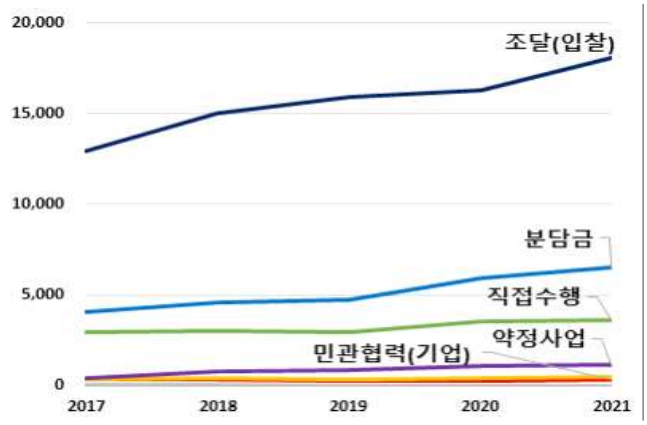
1 현황

□ 그간 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는 **정부 조달(입찰) 형태 위주,** 기타 공모·투자·협업 등 **기업협력 방식은 매우 낮은 비중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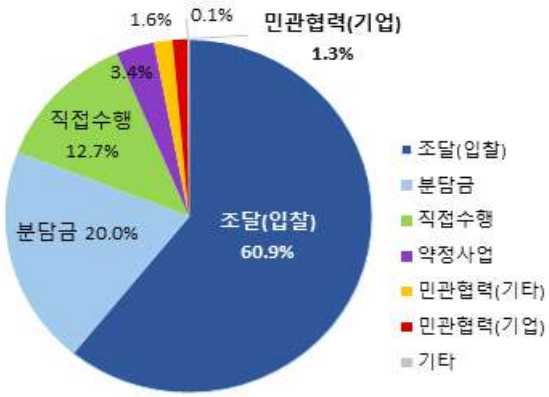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5년('17-'21) 평균 **조달(입찰)이 약 61%*, 기업협력은 1.3%**

* 입찰 참여 기업 수 : **(EDCF)** ('18) 40개 ('19) 51 ('20) 33 / **(KOICA)** ('18) 75개 ('19) 122 ('20) 162

ODA 사업 추진 형태



* 최근 5년('17-'21) 사업비(행정경비 등 제외) 추이 (단위: 억원)



* 최근 5년('17-'21) 평균 비중

① (KOICA) 민간참여 기반의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추진

○ 기업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한 기업협력 사업 도입('10년~) 이후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*(CTS '15~, IBS '17~)으로 확대

*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**CTS**(**C**reative **T**echnology **S**olution)
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/ **IBS**(**I**nclusive **B**usiness **S**olution)

* CTS+IBS(억원) : ('17) 151 → ('18) 183 → ('19) 182 → ('20) 197 → ('21) 173 → ('22) 214

○ **(CTS) 예비창업자, 스타트업**의 연구개발 및 ODA 테스트베드 지원

* (Seed 0) 예비혁신가 양성 → (Seed 1) 혁신기술·제품 개발 → (Seed 2) 개도국 내 시범사업 실행
* ('15-'21년) 총 23개국 93개 사업 추진, ('22년) 31개 사업 진행 중

○ **(IBS)** 기업이 **개도국 취약계층**을 포용(생산·판매·유통 등에 참여)하는 **비즈니스 모델 추진** 시 매칭 지원

* 기업 규모·성격 등에 따라 차등 지원(대·중견기업 50%, 중소기업 70%, 사회적기업 80%)
* ('10-'21년) 총 30개국 165개 사업 추진, 130개 기업 참여, ('22년) 47개 사업 진행 중

② (EDCF) 민간참여 촉진을 위한 PPP 사업 지원

○ 민간기업의 재원·기술·전문성 활용, 개도국의 **대규모 인프라 개발**을 지원하는 **PPP 사업** 지원

* EDCF는 총 4건의 PPP 사업(총 사업비 16.7억불)에 대해 3.1억불 지원

○ EDCF와 EDPF-수출금융을 연계하는 **복합금융 활용**으로 사업 성사 지원

* 인도네시아 카리안댐 건설사업,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 등

③ (교육부) 기업 협업을 통한 아프리카 교육분야 디지털 혁신 지원

○ 기업은 ICT 교실(솔라스쿨) 설치 및 유지보수, 교육부는 교원 초청 연수 및 기자재 등 후속 지원

* 솔라스쿨 : 태양광 패널, 전자칠판·컴퓨터 등이 구비된 이동형 컨테이너 교실
* ('13-'21년) 가나, 에티오피아, 르완다 등 9개국 완료, 현재('18-22년) 3개국 추진 중

④ (KOTRA) 글로벌 CSR 지원(非 ODA)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
○ 기업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기부하여 이미지 제고, 현지 진출 촉진을 지원하는 CSR 프로그램 운영

* ('18) 10억원 → ('19) 8 → ('20) 7 → ('21) 7 / 현지 홍보, 운반보관료 등 지원
* ('18~'21년) 총 512개 기업 참여

KOTRA의 글로벌 CSR 사업 형태

사업 유형	사업 내용
자사제품· 서비스 체험형 CSR	- 기업이 자사 제품·서비스를 기부하고 잠재적 바이어나 소비자가 체험·활용
해외 기술· 경영학교 운영	- 보유 기술·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하여 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발주처 등과 네트워크 확보
상생가치 창출형 CSV	- 기업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
유휴장비 신흥국 이전	- 유휴·저활용·불용장비 기증을 통한 산업표준·운영 경험 전수

사례	
	▸ 對보스니아 사라예보 병원 코로나 분석 장비 2대 및 검사키트 3만개 기부, 긴급입찰을 통해 34만 달러 규모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성공 ▸ 對케냐 NGO(굿네이버스)에 우리 기업 진단키트 17,000개 수출(12만달러), 현지 식약처 긴급승인 통한 새로운 거래선 발굴

【 주요 사례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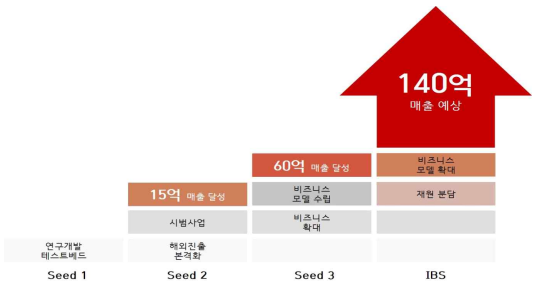
◈ **(혁신적 개발협력)** CTS 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는 기업에서 재원을 분담하는 기업으로 성장 지원

CTS 지원을 통해 발굴 및 지원		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 및 비즈니스 인정
• CTS 단계별 지원을 받아 교육 분야 디지털 앱인 '킷킷스쿨' 개발 및 현지 테스트 진행(에누마)	⇨	• 유니세프·테슬라 주관 글로벌 X-Prize 공동우승

⇨ (성과) 재원을 분담(IBS)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, 비즈니스 모델 본격화

• '21년 중소기업 대상 매칭사업(IBS)에 선정되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등 비즈니스 모델 확대





<CTS에서 IBS 사업참여까지 기업의 매출 추이>

◈ **(복합금융)** 댐건설 지원을 통해 상수도 공급망 사슬까지(도수로·정수장 포함) 패키지 지원하는 대형 수자원 인프라 사업 추진(인니 카리안댐 건설사업)

* 자카르타 상수도 공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활·공업용수 제공, 수해피해 경감

▸ 수원국 사전 협의를 통해 EDCF(댐 건설), EDPF(도수로), 수출금융(정수장·송수관로, 잠정) 복합금융 패키지 구성

→ 우리 기업 참여 조건인 EDCF와 수원국 재정사업에 대한 EDPF 연계 지원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 동원에 기여

* 한국수자원공사(K-water) 컨소시엄이 정수장 구간 사업주로 최종 낙찰('21.1월)

◈ **(역량강화)** 2012년 아프리카 교육발전협의회(ADEA)에서 한국의 교육개발 경험 공유 요청 → 정부-기업 MOU체결, 민관협력모델(PPP) 구성 추진('22년까지 12개국)

Solar Panel	자체 태양광 발전시설	솔라스쿨 수업
		

▸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 공유(교육부+한국교육학술정보원 : 교원 초청·현지연수 '14~'21년 249명),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·SW 등 지원(삼성전자 : 솔라스쿨 설치 및 유지보수)

→ 아프리카 ICT 교실 및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, ICT 활용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통해 국내 이러닝 사업의 해외진출 판로개척 및 한-아프리카 교육협력 증진 기여

2 평가

□ 기업과의 파트너십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소통 노력 보완 필요

○ (**성과**) **기업 참여 기반**의 개발협력 프로그램(CTS·IBS 등) 운영을 통해 개도국 난제 해결을 위한 **파트너십 지속 확대**

○ (**한계**)「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」등을 통해 정부 차원의 **민관협력 필요성을 강조**해 왔으나, 기업협력을 위한 **전략적 체계는 부족**

⇒ 정부-기업 간 **△공식협의 채널 구축, △정책간담회·설명회 등** 기업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, **파트너십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**

□ 정부 재정지원수단(증여·차관) 이외 민간지원수단 활성화 필요

○ (**성과**) △보증·지분투자 등 **지원제도**, △민간 금융지원을 위한 **법적 근거** 및 민간투자 활성화 **전략 마련 등 재원 다양성 확보 노력 강구**

○ (**한계**) 상기 노력에도 불구, 우리 개발협력은 국가 재정사업* 위주로 추진되어 **민간재원 참여 성과는 다소 미흡**

* **인프라 사업**의 경우 민간의 참여는 **건설·엔지니어링 분야 중심**이고 대부분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형태이며, 무상분야 기업협력 사업(매칭자금 지원)은 소규모 사업이 대다수

⇒ **개도국 정부에 대한 지원**으로 한정하지 않고, **민간부문 직접 지원** 등을 통해 **민간부문 참여**를 보다 **활성화**할 필요

□ 민간투자·기업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제약 요인 극복 필요

○ (**성과**) PPP 사업에 EDCF와 EDPF*-수출금융을 연계하는 **복합금융 활용** 및 현재까지 **총 4건**의 민자사업(총사업비 16.7억불)에 대해 **3.1억불 지원**

* **경협증진자금**: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대출소요 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(利差는 정부 재원으로 보전),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대규모 민간재원 유인 가능

- 또한, **임팩트투자 분야** 첫 지원 사업('15년 우간다 망고펀드사업) 발굴 이후, 아시아·아프리카 대상 **총 14건**(국내 및 해외 파트너)의 사업 수행

* (KOICA 임팩트투자 사업) 무상지원(KOICA) + 민간부문 투자(투자기관)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

○ **(한계) PPP 사업개발 및 구조화**(EDCF)에 **장기간**(최소 4~5년) **소요***, **임팩트투자 지원 사업**은 **증여**(KOICA)**에 집중**된 경향

* 사업개발(2년 이상), 입찰단계(6개월 이상), 사업권계약 및 금융조달(1년 이상) 등을 거쳐 사업 시작

- **개도국**은 **PPP사업**에 대한 **정부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경향***이 있어 **민-관 사업비 협의에 장시간 소요** 및 **사업발굴에 애로**

* 솔로몬제도 지원 사업은 민간금융 조달 곤란한 최빈국에서 추진된 PPP 사업으로 수원국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으로 성사된 사례

- KOICA의 **임팩트투자 지원 사업**의 경우, 지원 규모(소규모) 및 방식(증여·기술협력) 측면에서 **다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**

⇒ **관계부처와 민간투자·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의** 추진 및 **제도 개선 등을 검토**할 필요

□ 개발협력 사업 참여 관련 기업의 인식 및 역량 제고 필요

○ **(성과)** 우리 기업(소셜벤처·스타트업 등)의 개도국 시장 진출을 위한 **성장 사다리 구축** 및 단계별 사업화 **자금 지원·역량강화 지속 추진**

○ **(한계) ODA가 기업의 수익 창출과 연계되기 어렵다**는 인식과 더불어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따른 **기업의 관심 저하**

* IBS 사업의 대기업 협력 감소세 : ('15) 13건 → ('17) 2 → ('19) 0 → ('20) 0 → ('21) 3

- 개도국 진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**현지 대응에 한계 노정 가능성**

⇒ **기업 참여 유인 확대 및 개도국 정보 제공** 등 제약 요인 개선 필요

V. 추진 전략

비전

협력과 연대를 통한
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

목표

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통한
개도국 SDGs 이행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창출

전략목표	중점 추진과제
Ⅰ.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	✡ 복합금융 지원 확대 ✡ 민간부문 직접 지원 및 지원방식 다변화 ✡ 임팩트투자 활성화 지원
Ⅱ.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	✡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강화 ✡ 대형 인프라·패키지 사업 확대 ✡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ODA 연계
Ⅲ.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	✡ 정책자문 및 컨설팅 지원 강화 ✡ 정부-기업 간 소통 확대 ✡ 제반여건 정비

추진전략 1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

1-1. 복합금융 지원 확대

◈ 대형 인프라 사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재원을 연계한 금융지원 추진

□ **(복합금융)** 고양허성 차관인 **EDCF**에 **EDPF와 수출금융**을 연계하는 **복합금융*을 확대**하여 우리 기업의 **개도국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** 촉진

* (인니 카리안 물 공급 사업) EDCF(카리안댐) + EDPF(도수로) + 수출금융(정수장) 연계지원
(이집트 철도현대화 사업) EDCF(시스템·컨설팅) + EDPF(토목 인프라) 복합금융 지원

○ 복합금융 방식으로 **최적화된 금융지원 패키지**를 구성, **대형사업 발굴** 및 **사업성 제고** 등 민간 참여가 가능한 사업 추진 지원

※ (참고) 복합금융을 활용한 인도네시아 카리안 물 공급사업 사례

- **EDCF 댐 건설 지원**을 통해 **도수로-정수장** 포함 **상수도 공급 밸류체인**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**대형 수자원 인프라 사업 성사**(총사업비 8.2억불)

❶카리안 댐 건설 : EDCF	❷도수로 건설 : EDPF	❸정수장 건설 : 수출금융
▪ 다목적 댐 건설, 유지보수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 (총사업비 3.4억불) →	▪ 카리안 댐-세르퐁 구간 연결 도수로 건설 (총사업비 2.8억불) →	▪ 세르퐁 구간 정수장 및 송수시설(25.2km) 건설 (총사업비 2억불) →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 낙찰

□ **(통합지원)** **다양한 재원**(EDCF-EDPF-수출금융) 간 **협력플랫폼**을 **활성화**, 재원 규모 확대를 통한 **인프라 사업발굴 및 기획**

○ 개도국 EDCF 정책협의 시, EDPF-수출금융 **통합 설명회 개최**

* (예) 방글라데시-EDCF 정책협의에 EDPF 공동 참석 및 통합 설명회 개최('22.5월)

○ 상호 **유망 후보사업 공유, 다자개발은행**(MDB) 협의 시 **공동 대응** 등 업무협력 강화 추진

○ EDCF를 전략적으로 활용한 **복합금융 지원 사업 발굴·개발** 추진

* 수익성 사업에 대한 간접지원(주변 인프라 지원 등) 및 교통 분야 사업 추진 시 분리발주 참여 방안 등

1-2. 민간부문 직접 지원 및 지원방식 다변화

◈ 對정부 차관 외 EDCF 민간 지원 추진 및 지원 수단 확대

□ **(지원대상 및 방식)** EDCF의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을 **활성화**하고, **민간부문**에 대한 **직접 금융지원** 추진

○ EDCF는 **민간 금융지원** 관련 **법적 근거**는 있으나, **對정부 차관 중심으로 운영**되어 민간부문에 대한 **직접 지원 사례***는 **제한적**

* 민간부문 직접 금융지원 사례는 민간협력전대차관 1건(3백만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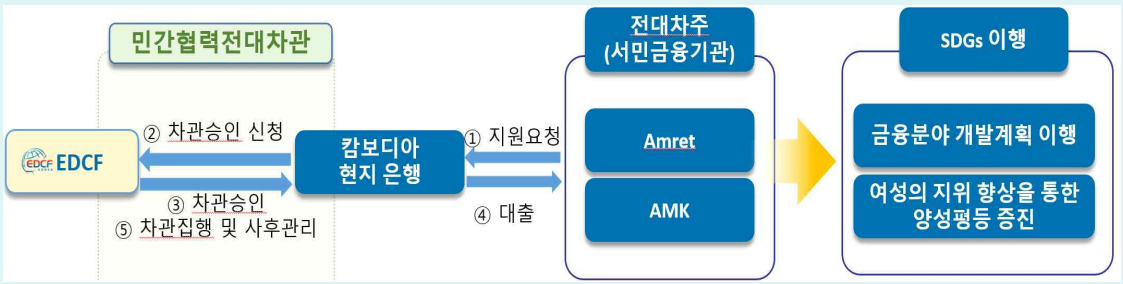
○ **EDCF의 민간참여사업 지원 대상**(개도국 정부 → 개도국 민간) 및 **지원 방식**(대출 → 출자, 보증 등) **다변화 추진***

*「**EDCF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**」 수립('22.8월, 제143차 기금위)

- **우리 기업 진출 수요**가 큰 협력국·분야 대상으로 **對민간 금융지원 시범사업**을 추진하여 **민간부문 지원 노하우 축적**

※ (참고) EDCF의 캄보디아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례

- **현지 은행**(전대차주) 대상 **서민금융 지원 운영자금 지원**('16년)



□ **(제도정비)** 對민간 지원 및 **차관 외 지원방식**(출자, 보증) 확대를 위한 관련 **규정 검토·보완***, **추진체계 정비** 등 **추진**

* 개도국 중앙정부의 담보, 복보증 등 현행 제도 완화 방안 등 검토

○ **상대적 고위험**인 **민간부문 사업**에 대한 **위험관리 방안** 정비

○ 개도국 민간사업의 **지원 필요성 및 리스크** 등을 **전문적**으로 **평가·관리**할 수 있는 **전담 운영체계** 검토

1-3. 임팩트투자 활성화 지원

◈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

□ **(지원확대)** 개도국 민간부문 대상, 현지 **당면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**할 수 있는 혼합금융 기반의 **임팩트투자 확대 추진**

○ 기존 **운영 중**인 **임팩트투자 지원 사업*** **규모**를 **확대**하고, **지원 분야와 방식 고도화**

* (예시) 단독 사업 형태로 국내 임팩트 투자사와 협력하여 동남아 소셜 벤처 대상 투자 지원

- 개도국 민간부문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**혼합금융 방식 공모 확대**

* △상하수도 △에너지 공급망 △산림·녹지 조성 분야 등에서 역량강화 및 기술협력 매칭펀드 지원

- 다양한 금융기법을 운용하고 있는 **기관·기업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**할 수 있는 **현지 민간부문**(기업, 소셜벤처)과 **협력** 추진

* (예시) 아시아 4개국 여성기업가 50만명 대상 지원기금 (KOICA 무상+USDFC 투자+민간투자)

- 정부 간 양자사업 등에 **임팩트투자와 기술협력** 등을 **접목**한 사업을 발굴, 지원 효과 극대화

○ **개도국 민간부문**을 지원하는 UN기구 및 **MDB 기금에 대한 참여** 등을 통해 임팩트투자 관련 **다자협력 확대**

- 아프리카에서 개발협력 기금*을 운용하는 **UNCDF, UNDP** 등과 **파트너십**을 통해 **현지 중소기업 지원** 추진

* (예시) 에티오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 기반 창업·중소기업 육성사업('20-'25) 등

- **ADB 벤처 펀드***(ADB Ventures Fund Ⅰ)를 통해 탄소 감축, 젠더 형평성 등 **사회적 가치 제고**에 기여하는 **민간 스타트업 지원** 추진

* 아·태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ADB 다자기금, 한국은 '20년 1,500만불 출자

□ **(제도정비)** 임팩트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**제도 정비 추진**

○ 국제개발협력 **관련 규정 검토** 및 **중장기 정책 개선사항 마련**

* 투자 촉진을 위한 다년도 사업 방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

○ **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**를 추진하고, **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**(기금 도입 등) 검토

추진전략 2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

2-1.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강화

◈ KOICA의 기업협력 프로그램 고도화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

□ **(CTS)** 국내 **혁신기업·소셜벤처**와의 **CTS 사업 지속** 및 **맞춤형 지원**

* (Seed 0) 예비혁신가 발굴 → (Seed 1) 혁신기술 개발 → (Seed 2) 시범사업 지원 → (Seed 3) 사업 확대

○ 개도국 내 잠재력 있는 **파트너 기업 발굴·육성**을 위한 **역량강화** 사업* 확대 및 **CTS 종료 기업 대상 IBS 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** 실시

*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에 역량 있는 민간과 협력, 인큐베이팅(연간 10여건)+엑셀러레이팅(연간 25건)

○ **외부 전문기관**(재단·해외기금 등)과의 **협력사업을 발굴**, CTS 사업을 위한 **민간재원 동원을 확대**하고 **성과관리 체계화** 추진

○ 역량 있는 **혁신기업**의 **양자 ODA 사업 참여 기회**를 **확대**하고, **해외기관***과의 **교류** 및 **파트너십** 강화

* (예시) 혁신기업과의 협력을 추진중인 USAID, Bill Gates Foundation 등

□ **(IBS)** 개도국 현지 수요 및 민간 관심 분야 등을 반영, **민간기업의 경험, 전문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**한 **IBS 프로그램 지속 확대***

* 우리 비교우위를 고려, ▲개도국 디지털 전환 ▲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기술 지원 사업 발굴 등

○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 추세를 감안, **사업 기획 단계부터 기업 경영의 ESG 요소를 반영하여 ODA 활동과 연계** 추진

- 기존의 기업협력 공모형 사업 외에 **대기업 수요 기반의 KOICA ESG 이니셔티브 사업*** **도입**('22년)**을 통해 협력 방식 다각화 추진**

* ESG 이니셔티브 사업: 기업 경영활동 전반의 ESG 전략에 부합하면서 글로벌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을 KOICA와 기업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프로그램

< 참고 : ESG 반영 개발협력 모델 개요 >

	기업 제안 공모형	주제 제시 공모형	ESG 공동기획 사업형	ESG 공동기획 투자형
주제	정부 정책 및 KOICA 전략	KOICA(현지사무소)를 통한 분야별 주제 제시	ESG 주제 중 SDGs 달성에 기여하는 세부 주제	
규모	총 100억원 내외(1:1 매칭)		총 100억원 내외(1:1 매칭)	총 50억원 내외(1:1 매칭)
운영	대기업 / 파트너 컨소시엄		별도 이행기관	국내 운용사 펀드 위탁

2-2. 대형 인프라·패키지 사업 확대

◈ 우리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EDCF 협력 채널 및 지원 수단 활용

□ **(인프라사업)** EDCF가 후보사업 **초기 협의단계**부터 **민간의 재원과 기술, 전문성을 활용**할 수 있는 **대형 인프라 사업** 발굴 추진

○ 경협 확대 가능성이 높은 **주요국 선정**을 검토하고, 정부 정책협의 등 **EDCF 채널**을 **적극 활용**하여 사업 협의

○ 관계부처·기관 **협의체**(범부처 EDCF 사업심의위, 주요기관 정례협의 등) **운영을 활성화**하여 기업 참여 **가능성이 높은 후보사업** 발굴

○ **다자개발은행**(MDB) **연례협의** 등 계기 **유망 후보사업 목록 확보**

○ 인프라 사업 지원 시,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**증여·기술협력 사업을 전후방으로 연계**, 사업 효과성 제고 추진

□ **(수주지원)** **해외 PPP 사업 기획·설계 단계**부터 **EDCF가 주도적으로 참여**하여 **민간참여 유도** 및 **사업 수주지원**

○ **민간기업, 인프라 공기업**(수자원공사, 도로공사 등) 등과 간담회*를 개최하여 **사업수요 발굴** 및 **지원강화** 추진

* 투자개발사업 수행 주요 기업 면담, 국별 진출기업 간담회

○ 투자개발형 사업의 **대형화·전문화** 추세에 대응하여 **전·후방 정책 컨설팅, 전문기관 자문 강화**를 통해 전문성 보강

□ **(패키지사업)** **공공과 민간부문**(기업·NGO 등) **연계**를 통한 **유무상** 및 **민·관 패키지사업 발굴** 추진

○ **사업전략협의회*** 등을 활용, **정부**(ODA)**-국제기구-시민사회-기업** 간 협업, **사업발굴 논의** 확대

* 국조실 주관, 관계부처+공공기관+관련협회+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사업발굴 협의체

○ **기관 간**(유-무상, 무-무상) 및 **분야 간 연계·융합 사업 우선 발굴** 추진

2-3.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ODA 연계

◈ 기업 경영 활동과 ODA와의 접점을 활용하여 상생협력 추진

□ **(사회공헌 연계)** 개도국 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현지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**사회공헌활동 측면 지원**

○ 기후변화·환경 이슈, 코로나19 장기화 등 개도국 수요를 감안, 기업의 기존 **CSR 사업을 개발협력 사업**과 **연계*** 추진

* KOTRA의 경우, 글로벌 ESG+ 사업으로 확대 개편('22년)하여 지원금 제공 및 현지 무역관을 통한 행사 등 지원

- **개발협력 사업**(KSP, EIPP, 기타 ODA 프로젝트 등) **수행 기업**의 **사회공헌활동 발굴 및 지원**

▸(사례①) 모잠비크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정책자문(KSP) 수행 → 수행 기업이 정책자문과 연계하여 모잠비크 보건부에 진단키트 5천회분 CSR 기부 지원

▸(사례②) 쿠바 패키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자문(KSP) 수행 → 수행 기업이 정책자문과 연계하여 KCL 포장기기 유휴장비 CSR 기부 지원

□ **(연계사업 발굴)** 기업 **ESG 경영과 개발협력 연계 사업모델 발굴** 추진

○ 최근 글로벌 투자·경영 트렌드인 ESG를 반영한 **기업협력 모델 구상**

-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기업이 **참여 가능한 사업모델 분석·유형화**

* 산업별(금융, 그린·바이오, 친환경·제조 등) 기업 니즈를 분석, 유망사업군 도출

○ 시행기관 **기업협력 사업과의 연계** 방안* 모색

- 실행 가능성과 개도국 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**사업모델을 발굴**하여 실제 **사업화 추진**('24년~)

* (예시) 교육부는 ESG 관점에서 대기업과 추진했던 솔라스쿨 후속 모델을 설계(~23.上)하여 현지 자생적 발전역량 구축 지원 예정

추진전략 3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

3-1. 정책자문 및 컨설팅 지원 강화

□ **(KSP) KSP 고도화**를 통해 개발협력 **시너지 효과** 도모

* K-소프트파워 확산을 위한 KSP 고도화 전략 수립('21.9월)

○ **KSP 정책자문**이 후속 **인프라 사업과 연결**되도록 **고도화** 추진

* (예시) 페루 선박제조시설 현대화 전략 KSP('19) → 현지 발주처-국내기업 수출상담회(KOTRA) → 국영조선소 확장 F/S(해수부, '20-'21) → G2G사업 응찰('20, 부산항만공사 컨소시엄)

○ 사업 기획단계부터 민간이 참여하여 **후속사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KSP를 발굴**하는 **민간 사업제안제*** **활성화**

* 기업·NGO 등에서 관심분야 자문 주제를 제안할 수 있는 창구 신설

□ **(DEEP) ODA 사업**을 통한 개도국 **기술자문·컨설팅 확대**

○ **후속 사업**에 국내외 **민간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**

* (KOICA) 최근 10년('12-'21) 총 38개국 4.7억 불 규모의 개발컨설팅 사업 수행

○ 컨설팅 등을 통한 **우리 기업**의 **개도국 내 활동기반 조성** 기여

* 한-이집트 기술대학 설립사업(16-20/583만불) 시, 삼성 현지법인의 CSR 활동을 연계한 태블릿 PC 보급을 추진하여 삼성 법인의 성공적인 현지 공장 확장에 기여

3-2. 정부-기업 간 소통 확대

□ **(협의체 신설) 범정부-기업간 정례 소통**을 위한 **협의채널 구축**

* KOTRA, 해외건설협회,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관련 기업 등 참여

○ **정부의 기업협력 정책 대외 공유**, 기업측 제안 및 건의사항 협의

□ **(소통 내실화)** 기존 운영 중인 채널을 활용, **기업과의 소통 지속 추진**

○ 재외공관-해외사무소-기업과 **온라인 ODA 간담회***를 개최하여 **애로사항 청취** 및 기업 간 **소통 지원** 추진

* 국조실 주관, ODA 시행기관(KOICA, KOTRA 등) 및 사업 수행 기업과의 협의

○ 정부-기업-시민사회 협업, **사업전략협의회**를 **정례 운영**하여 유·무상 전략사업 발굴 노력

3-3. 제반여건 정비

◈ 민간기업 참여 확대 유인을 위한 환경 조성 추진

□ **(현장지원)** 상대적으로 **불확실성이 높은 개도국 사업 특성**을 감안, 개도국 현지 **사업 수행 기업**에 대한 **현장 지원 확대**

○ **재외공관 중심**으로 ODA 시행기관(KOICA·EDCF·KOTRA·KOFIH·KIND 등) 해외사무소와 협업하여 **현지 기업 지원 강화***

*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△현지 사업수요 파악·분석, △기업 애로사항 대응 및 해소를 위한 수원국 협의, △수원국의 기업협력 관심 분야 정보 수집 등 지원

○ **EDCF**(현지사무소)와 **수원국 정부, MDB**(현지사무소) 및 **관계기관**(해외사무소)* 등과 **협업체계** 구축

* KIND 해외거점센터(베트남, 인도네시아, 케냐, 방글라데시) 등

□ **(정보공유)** 우리 기업 대상 **ODA 사업참여 확대**를 위한 **정보 제공**

○ ODA KOREA 및 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**개도국 현황** 및 **사업정보, ODA 조달정보** 등 활용 가치가 높은 정보 **지속 공유**

□ **(제도개선)** 기업 참여 증진을 위한 관련 기업 의견수렴 등 **개선사항 발굴** 및 **행정절차 간소화** 추진

○ 민간협력 사업 추진 시 △사업제안서 양식 및 공모 절차 간소화, △정산 유연화, △사업 관리방안 개선 등 검토

VI. 향후 계획

과 제	일정	담당부처
[추진전략 1] 민간투자 및 금융지원 활성화		
EDCF-EDPF-수출금융 연계사업 발굴 및 협력 강화	'22년~	기재부
지원방식 다각화 및 제도개선 추진	'23년~	기재부
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을 위한 KOICA 혼합금융사업 확대	'23년~	외교부
임팩트투자 관련 다자협력 확대	'23년~	관계부처
민간재원 동원 확대를 위한 기금 도입 등 검토	'23년~	관계부처
[추진전략 2] 민간기업 참여 사업 확대		
KOICA 기업협력 신규사업 모델 수립 및 도입	'23년~	외교부
대형 인프라 사업 발굴 확대	'23년~	기재부
기업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ODA 연계 지원 강화	'22년~	KOTRA 국조실 등
[추진전략 3] 민간기업 참여 환경 조성		
KSP 민간 제안사업 추진	'24년~	기재부
범정부-민간기업 정례협의체 신설	'23년~	국조실
개도국 사업 현장 지원 강화	'22년~	관계부처
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	'22년	외교부